태국 대표 불교유산, 한국 첫 나들이

국립중앙박물관, '어메이징 타일랜드' 특별전 개최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어메이징 타일랜드'에 전시되는 '걷는 부처'.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국가 태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들이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다. 태국 전역의 국립박물관에 산재된 문화유산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여서 주목된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유홍준)은 6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특별전 '어메이징 타일랜드: 태국미술명품전'을 개최한다. 태국 문화부 예술국과 함께 마련한 이번 전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사시대부터 현재에 이르는 태국의 역사와 미술을 종합적으로 조명하는 자리다.

방콕국립박물관을 비롯한 태국 전역의 국립박물관 21개 기관이 참여해 조각, 회화, 공예 등 태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 239점을 선보인다. 특히 태국에서도 한자리에서 보기 어려운 대표 작품들이 대거 출품돼 눈길을 끈다.

동남아시아 대륙 한가운데 자리한 태국은 예로부터 다양한 사람과 물자가 오가고, 여러 문화가 들어오고 만나는 길목에 위치해 있다. 이 길을 따라 태국은 낯선 문화를 밀어내기보다 기꺼이 포용하고, 기존의 전통 위에 새것을 결합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왔다. 이번 전시는 이러한 태국의 유연함과 포용력에 주목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서로 다른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를 맞이한 오늘날, 이번 전시가 문화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새롭게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시는 관람객이 태국의 역사를 처음 접하더라도 따라가기 쉽도록 연대기적 순서를 따라 세 부분으로 구성했다. 1부 '태국 이전의 태국'에서는 오늘날 태국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타이족의 왕국이 등장하기 전,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공존했던 시기의 모습을 조명한다.

정교하게 장식한 청동기와 붉은 기하학무늬 토기에서는 선사시대 사람들의

6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박물관 특별전시실1서 진행
태국 21개 국립박물관 참여
'걷는 부처' 등 239점 선봬
통도사 성보박물관 순회전도
유홍준 "문화적 다양성 확인"

기술과 믿음을 엿볼 수 있다. 인도에서 온 장신구, 지중해 지역에서 온 로마식 램프 등은 당시 이 지역이 동서 교류의 중심지였음을 잘 보여준다.

2부 '타이 왕국의 영광'에서는 13세기 이후 타이족이 세운 수코타이(Sukhothai, 1238~1348), 란나(Lanna, 1292~1775), 아유타야(Ayutthaya, 1351~1767) 왕국의 고전 문화를 종교·무역·왕권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살펴본다.

수코타이 시대 태국의 가장 독창적인 예술품이자 태국 불교미술을 대표하는 '걷는 부처'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부처의 모습과 다른, 우아한 자세로 걸어가는 자세를 취하고 있어 특히 눈길을 끈다.

타이 왕국은 활발한 무역을 바탕으로 더욱 넓은 세계와 교류했다. 수코타이를 대표하는 상칼록 도자기는 동남아시아는 물론 동아시아로 수출됐으며, 아유타야의 수도 아유타야는 17세기에 이미 동서양 여러 나라의 상인과 외국인이 모여 사는 국제도시로 성장했다. 종교와 무역을 바탕으로 왕실은 절대적인 권력과 부를 축적했으며, 불탑에 봉헌된 왕의 상징물과 왕관을 쓰고 왕의 장신구를 착용한 불상 '보관불'은 왕의 권위를 잘 보여준다.

3부 '왕실과 불교의 나라'에서는 1782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라따나꼬신(방콕) 왕조의 미술을 왕실과 불교라는 두 축으로 조명한다. 화려한 왕실 공예품과 태국인의 삶 깊숙이 자리 잡은 불교문화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태국의 모습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대표적인 문화유산이 '에메랄드사원의 옛 중문'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왕실은 동남아시아 최고의 성물로 꼽히는 에메랄드 불상을 왕궁 내에 모시고, 불교 경전과 승단을 정비하는 등 불교에 대한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이를 통해 왕실은 왕권의 정통성과 권위를 강화했으며, 동시에 문화와 예술 부흥을 이끄는 중심 역할을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걷는 부처·사위성 신변·불족적…낯선데 재밌다

노남희 학예연구사가 소개하는 주요 전시유물들

도리천 강하 담은 '걷는 부처'
중생에게 나아가는 의미 확대
모공서 부처 태어나는 관음상
'불설대승장엄보왕경' 도상화해
'하리하라상', 포용과 습합 보여

국립중앙박물관이 선보이는 '어메이징 타일랜드' 특별전은 태국 불교미술의 독자성과 동남아시아 문화의 종교적 습합을 함께 조망하는 자리다. 전시에 출품된 유물들은 단순한 조형미를 넘어, 상좌부 불교의 신앙 세계와 크메르·수코타이로 이어지는 역사적 층위를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전시 기획을 담당한 노남희 국립중앙박물관 세계문화부 학예연구사는 몇 명 안되는 동남아 불교미술사 전문가다. 그에게 이번 전시 주요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가장 먼저 주목되는 유물은 '걷는 부처'다. 한국 불교미술이 좌상 중심으로 전개된 것과 달리, 태국 수코타이 시대에는 한 발을 내딛는 듯한 유려한 입상의 부처가 예경의 대상으로 등장했다. 노 연구사는 이 도상의 근거를 석가모니 부처님의 도리천 강하 설화에서 찾았다. 도리천 강하 설화는 부처가 돌아가신 어머니 마야부인을 위해 도리천에 올라 석 달 동안 설법한 뒤, 금·은·수정 세 보배 계단을 따라 범천과 제석천을 거느리고 지상으로 내려왔다는 이야기다.

이 도상은 단순히 '내려오는 부처'에 머물지 않는다. 노 학예연구사는 "독립된 예경상으로 만들어진 것은 수코타이 시대이며, 이후 부처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 설법을 펼치는 모습으로 의미가 확대됐다"고 전했다. 또한 걷는 자세는 사념처 수행 가운데 몸의 자세를 관찰하는 수행 전통, 나아가 부처의 발자국을 숭배하는 불족적 신앙과도 연결된다는 게 노 학예연구사의 설명이다.

이번 전시에서 소개되는 '몸에서 무수한 부처를 탄생시키는 관음보살'은 한국 관람객에게 낯선 도상이다. 한국의 관음보살상이 대체로 자비롭고 여성적인 인상으로 조형되는 것과 달리,


'몸에서 무수한 부처를 탄생시키는 관음보살'.


'하리하라상'.


'사위성에서 일어난 기적을 묘사한 비석'.

전시된 크메르 계열 관음보살상은 당당하고 강건한 신체감을 보인다. 특히 관음보살의 몸 곳곳에서 부처가 태어나는 듯한 도상은 한국 불교미술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예다.

노 연구사는 이 관음보살상의 경전적 배경으로 〈불설대승장엄보왕경〉을 들었다. 이 경전은 '옴마니반메훔'으로 알려진 육자진언이 처음 등장하는 경전으로, 관음보살의 구제 능력을 우주적 차원으로 확장해 설명한다. 관음보살의 모공 하나하나에서 부처가 태어나고, 그 안에 온 우주가 깃들어 있다는 경전의 세계관이 조각으로 구현된 셈이다. 여기에 크메르 제국의 전성기를 이끈 자야바르만 7세의 얼굴이 투영돼 있어, 종교적 상징과 정치적 권위가 결합된 독특한 유물로 평가된다.

힌두교와 불교가 교차하는 동남아시아 종교문화의 단면은 '하리하라상'에서 확인된다. 한 몸의 절반은 비슈누, 다른 절반은 시바로 표현되는 이 도상은 모든 신성이 하나의 근원에서 다른 모습으로 발현된다는 힌두교적 세계관을 반영한다. 노 연구사는 "수코타이는 상좌부 불교를 통치 이념으로 받아들였지만, 이전부터 자리한 크메르 문화와 브라만 전통을 배척하지 않았다"며 "힌두교 사원을 세우고 브라만들이 의례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한 기록도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불족적 역시 태국불교를 이해하는 핵심 성보다. 노 연구사는 "불족적 숭배가 스리랑카에서 크게 발전했고, 수코타이가 스리랑카 상좌부 불교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보리수 숭배와 함께 전래됐다"고 설명했다. 부처님의 발자국은 '부처가 이곳에 왔었다'는 가장 직접적인 자취다. 역사적 석가모니의 생애와 존재에 집중하는 상좌부 불교 전통에서 불족적은 부처의 현존을 상징하는 강력한 매개가 됐다.

고대 인도 코살라국의 수도 사위성(사왓티)에서 부처님이 외도의 도전자들 앞에서 불가사의한 신통력을 보여 불교의 위대함을 입증하고 대중을 교화한 '사위성 신변(神變)'을 도상화한 부조상도 노 연구사는 주목해야 하는 유물로 꼽았다.

씨앗에서 순식간에 나무가 자라고, 그 위로 다양한 자세의 화불이 나타나며, 이를 본 외도들이 굴복하는 이야기가 부조 안에 촘촘하게 담긴 부조상을 두고 노 연구사는 "동남아시아 불교미술뿐 아니라 불교미술사 전체에서도 손꼽히는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신중일 기자

제 11 회
천태예술 공모대전
Cheontae Order of Korean Buddhism Art Award

접 수
9.16(수) ~ 17(목)
전 시
11.25(수) ~ 30(월)

부문 및 부문별 공모 개요

부 문	규 격	유 의 사 항
전통불화 현대불화	200호 미만 가로×세로 합 400cm 이하 (세로 210cm 이하)	표구(액자, 판넬, 족자)한 완성작 접수
조각 공예	높이 210cm 미만 가로×세로 합 400cm 이하 무게 500kg 미만	조립한 완성품으로 제출
민화	200호 미만 가로×세로 합 400cm 이하 (세로 210cm 이하)	표구(액자, 판넬, 족자)한 완성작 접수

※ 자격 제한 없음 ※ 1인 3점 이하 ※ 액자에 유리 금지
※ 출품료 없음 ※ 작품제작과정 담은 세부 작품설명 필요

시상 내역

시 상	수 상	시 상 내 역	비 고
대 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1명	상장 및 상금 2,000만원	종단 귀속
최 우 수 상 (국가유산청장상)	1명	상장 및 상금 700만원	
우 수 상	4명	상장 및 상금 각 200만원	
장 려 상	4명	상장 및 상금 각 50만원	
특 선	약간명	상장 및 상품	
입 선	약간명	상장	
특 별 상		상장 및 기념패	

제출서류
출품원서(소정양식) 1부, 작품설명서(소정양식) 1부

원서 배부
금강신문 홈페이지 www.ggbn.co.kr에서 7월부터 다운로드

작품 및 응시원서 접수
접수 기간 : 9월 16일(수) ~ 17일(목)
접수 시간 : 오전 10시 ~ 오후 5시
접수 장소 : 관문사 2층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7길 111)

심사 발표
금강신문 홈페이지 및 개별 문자 통보

문의 천태예술공모대전 사무국 02-723-1559

시상식 및 전시
시상식 일정 추후 공지
전시 : 11월 25일~30일,
한국미술관(서울시 종로구 인사동길 12 대일빌딩 2층)

주최 대한불교천태종 주관 제11회 천태예술공모대전 운영위원회 시행 대한불교천태종 천태문화사업단 후원 금강신문사, 불교천태중앙박물관